

코스피	코스닥
2623.02	845.44
(-6.42)	(-0.38)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489	1378.30
(-0.023)	(-0.90)

K-주얼리 수출
19년만에 최대
경쟁력 제고 지원 필요
02



“하반기까지 어렵다”... 석화업계, 자구책 마련 안간힘

글로벌 공급과잉에 中 경기 부진
실적악화 속 친환경 전환도 부담
롯데, 공장 직원 전환배치 검토
LG화학·금호석화 ‘희망퇴직’
4社: 평균급여 전년비 15.2% ↓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화업계가 구조조정을 비롯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울산 공장의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공장은 범용 플라스틱 소재인 PET(페트)를 생산한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장 가동을 줄이고 일부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운영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첨단소재사업부도 이달 생산기술직 근속 5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익성이 떨어진 IT필름(LCD 용 편광판 소재) 사업의 매각 이후 인력 조정을 위한 조치다. 당시 희망퇴직과 인력 전환을 단행했지만 추가 조정이 필요했다.

금호석유화학도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중국기업과의 라텍스 합작공장 지분 절반을 올해 다른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석화업계 불황의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더불어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아울러 고유가에 원가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와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에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고 있다.

석화업계는 지난해 평균 급여를 낮추고 성과급 등 특별급여 지급을 줄이며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 석화 4사(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석화)의 평균 급여는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5900만원) 15.2% 낮아졌다. 임원 급여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임원 평균 급여는 2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

8700만 원) 대비 4.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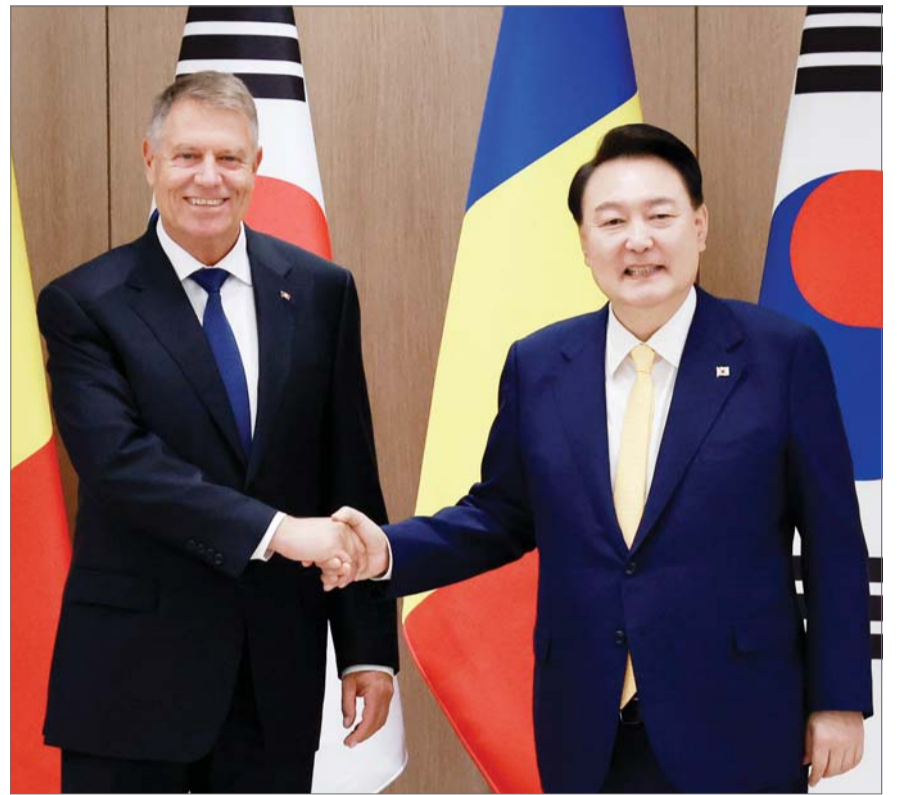
또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호황기를 겪었던 당시의 성과급과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다.

LG화학의 경우 작년까지는 사업 부문별로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낸 사업본부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석화업계 전체적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다”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등 수익성 악화에서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석화업계의 재기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꾸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업계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요한니스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지역 정세 대응 공조 무기수출·원전협력 강화

韓-루마니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한 뜻’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한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23일 ‘한-루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원전은 물론 교역·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5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한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한니스 대통령은 이번이 첫 방한이며,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요한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6년을 맞은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치·안보 ▲경제 협력·투자 ▲문화·교육·인적 교류 등 3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를 살펴보면 양국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 대응에 공조하고, 국방협력 협정을 통한 무기 체계의 대(對)루마니아 수출 확대와 군사장비 등의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

또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군사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 상생의 방산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방·방산 현안 논의를 위한 국방부 간 실무협의체(국장급) 개설 추진에도 합의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원전협력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체르노보더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수주 이후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한니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 중 두산 에너지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찰하고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협력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의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서예진 기자 syj@

中企 대출연체 급증에 지방은행 ‘빨간불’

5개 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中企 21.7% 늘어 전체의 93% 차지
장기불황에 매출 감소... 연체율 ↑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 대출연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지방은행은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해 건전성 개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 규모는 6988억원이다. 지난 2022년 말 기록한 5954억원에서 1034억원(1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59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364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1165억원(21.7%) 늘어 전체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의 93%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불황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분기 기준 4.2%에 달했던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에는 -1.2%를 기록해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분기 -2%, 3분기 -2.7%로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연체가 늘면서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91.7%(광주 95.4%·전북 94.3%·경남 92.1%·부산 91.1%·대구 85.8%)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72.7%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개 지방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기록한 0.35%에서 0.17%포인트(p)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0.26%)의 두 배에 달한다. 높은 연체율은 대손준비금 등 리스크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신규 대출 취급을 어렵게 해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은 약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잔여 대기업 대출액은 전년 대비 17%(1조9786억원) 증가한 13조375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다소 고충을 겪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어” /사진 뉴스1
▲ 與, “영수회담 환영... 25만원 지원금 반대”

▲尹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 진행
▲ 안철수 “尹, 이제 정식 기자회견 해야 할 때... 잘못된 점 반성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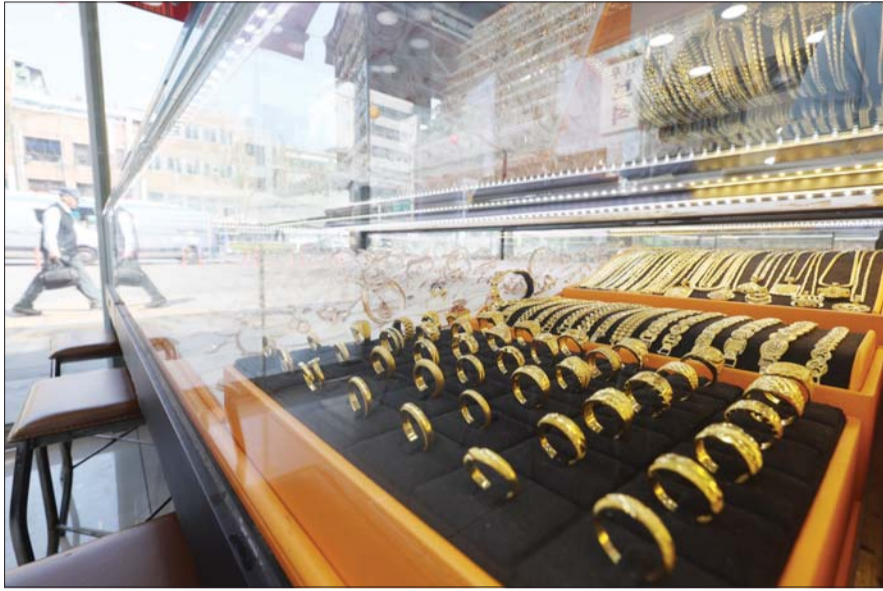


▲ 조국, 이재명에 “尹과 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 공개 제안
▲ 홍익표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변화 시작... 자신이 바뀌어야” /사진 뉴스1

‘K-주얼리’ 수출 19년만에 최대... “관세면제, 경쟁력 키워야”

무협, 주얼리 수출산업 현황

제작년 총 교역액 1000억 韓, 작년 주얼리 수출비중 0.07%
“산업육성·업체 양성화 기반 마련
원가 부담 경감 정책적 지원 절실”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에 진열된 금 제품 모습.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류 수출액이 2005년 이후 최대규모인 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의 비중이 0.07%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국내 주얼리 수출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얼리 교역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매년 3.9% 성장했고, 2022년 총 교역액은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탄한 내수시

장을 보유한 중국(32.9%)과 미국(20.2%) 인도(17.6%)가 전세계 주얼리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주얼리 교역에 활기가 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얼리 수출도 4억 3000만달러로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주얼리 수출액은 2020년 2억달러, 2021년 3억5000만달러, 2022년 3억3000만달러, 2023년 4억 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우리나라 주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4%,

2021년 0.05%, 2022년 0.05%, 2023년 0.07%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자사 총수출에서 주얼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문 주얼리 수출기업 수는 90개 사에 불과했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6개사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8.6%를 차지한다.

주얼리 수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고 소수 상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인 수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얼리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수립해 업체 양성화와 함께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얼리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다이아몬드 등 25종의 주얼리 원석과 나석에 적용되는 관세면제 조치를 진주·수정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중소 주얼리 제조 업체

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 국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준하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망 전시회 참가, 한국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전략도 주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주얼리 산업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하는 등 뛰어난 주얼리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金채소’ 영향... 생산자물가 4개월째 상승

한은, 축산물 2% 수산물 1.6% ↑
배추 36% 김 19.8% 등 큰폭 상승



채소값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4개월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배추, 양파 등 채소값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으로 전월(122.21) 대비 0.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지수가 154.20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3% 올랐다. 축산물(2.0%)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산물(1.6%)과 농산물(0.4%)이 뒤를 이었다. 배추(36%)와 김(19.8%), 양파

(18.9%), 돼지고기(11.9%) 등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공산품지수는 122.64로 석탄·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올랐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

업용 도시가스(2.6%)가 오르면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1%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김은 해외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변동을 측정 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최종재가 0.1% 내렸으나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가 각각 0.8%, 0.3% 올랐다. 국내출하에 수출품을 더한 총산출 물가지수도 한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서비스(0.0%)는 보합이었으나 농림수산물(1.1%), 공산품(0.5%)이 올랐다.

/나유리 기자 yul115@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8.2억 지급

권익위, 총 68명 신고... 수입금 70억

10%) 순이었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68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억원, 34%) ▲연구개발(1.9억원, 24%) ▲복지(1.1억원, 14%) ▲의료(0.8억원,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위라벨일자리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와 동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24. 8. 24.(토) ~ 8. 30.(금) [7일간]
- 개최지 : 경상북도
- 경기장 : 금오공업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구미전시컨벤션센터, 박정희체육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참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3.(금) 18:00까지 [5일간]

나. 접수방법

- 참가원서 : 온라인 접수 (<https://meister.hrdkorea.or.kr>)
- 제출서류 : 접수 시 파일(스캔본) 첨부 (학교, 기업체 등 소속이 있는 참가자)
 - ① 학생(직업전문학교 포함), 군인, 공무원 등 : 추천서 1부
 - ② 근로자 : 추천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3개월 이상 근무사실 확인) 각 1부
 - ③ 학원생 : 추천서 및 수강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 수강사실 확인) 각 1부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수 자격 무효

다. 참가자격

-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금, 은, 동, 우수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023년 입상자에 한함)
- ※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인정받은 대회의 직종별 최고득점자 1명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대회 당시 참가한 시·도기능경기위원회를 소속 시·도로 접수하여야 함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참가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주민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참가원서를 접수하며, 산업체근로자는 참가하거나 학교, 기업 등 소속단체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체소속으로 접수하며, 추천서 및 추가서류는 해당 소속기관의 주소를 관할하는 기능경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필요(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 팀별 참가 직종(산업응용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은 지방대회 입상 시의 팀과 동일한 팀으로 접수, 팀원 중 1명이라도 불참 시 해당 팀은 경기 참가 불가
-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체근로자 특별로 입상한 경우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산업체근로자로서 참가하여야 함(일부 선수로 참가 불가)

추천서 및 추가서류 문의처

시·도	접수장소	연락처	시·도	접수장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279	02-2137-041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창로 135	033-248-8506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04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279-9024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1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기길 27	041-620-7653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06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성로 69	063-210-92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32	전남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22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042-580-9113	경북	경북 안동시 사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24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홍가로 347	052-220-324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0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044-410-8014	제주	제주 제주시 북지로 19	064-729-0727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03			

시 상

가. 시상내역

구분	입상 선수	우수선수 배출기관
금	금메달,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탑 및 상금 300만원 ▶ 은탑 및 상금 200만원 ▶ 동탑 및 상금 100만원 ※ 소정의 포상기준에 의거 선정
은	은메달, 상장 및 상금 600만원	
동	동메달, 상장 및 상금 400만원	
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	

※ 금은동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 면제함
- 입상자 자격면제를 위해 원서접수 시 Q-NET(www.q-net.or.kr) 가입 및 아이디 기재 필수

나. 시상 관련 유의사항

- 직종별 입상자는 직종별 참가선수 수에 따라 입상자 선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임
- ※ 단, 입상자와 0.4점 차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메달(우수상)을 공동수상하며, 추가 메달 입상자는 각 메달당 2명(팀), 추가 우수상 입상자는 3명(팀)까지 가능
- 2026년 제48회 중국 상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은 참가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해당 직종 상위 득점자 2명(팀)에게 국가대표선수 선별을 위한 국가대표평가전 참여 자격을 부여함
- ※ 폴리메카닉스, 사이버보안, 모바일로봇, 산업용로봇 직종 등은 별도 국가대표선발전 실시 예정

참고사항

- 시설목록에 따라 경기에 필요한 일부 장비, 공구, 재료, 소프트웨어 등은 선수가 지참하여야 함
- 대회참가에 따른 이동과 대회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선수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meister.hrdkorea.or.kr>) 및 한국위원회 032-509-1847, 1846, 1842, 1849

고용노동부장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건설사 실적 전망 ‘무난’... “현금성 자산 감소 눈여겨보아야”

삼성물산·DL이앤씨 ‘양호’
GS건설·대우건설 등 ‘부진’
“주가, 지방 주택시장에 달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발표 기간(어닝 시즌)이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예상보다 좋은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내놨지만 건설사 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오는 24일 삼성물산, 26일 GS건설, 다음달 2일에는 DL이앤씨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액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7%, 4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013억원보다 25%나 늘었다.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의 실적이 견조했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과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

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도 실적 전망이 양호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1분기 매출 1조9454억원, 영업이익 9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물산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조3573억원, 6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2%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감

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우건설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한 1388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적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감소했는지 여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 물로 계약한 2021, 2022년에 착공한 사업장의 준공이 올해 중·하반기로 대거 몰려들어 1분기 건설사들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월 기준 입주율이 수도권 83.1%, 지방 중·소도시 68.2%로 지방 노출도가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역시 1분기 순현금이 9000억원으로 작년 말 2조3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도 절대적인 이익규모는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이익률은 영업이익 기준 2.9%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며 “주택시장

의 불확실성이 원가를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율 부진·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20개 건설사의 PF 보증액은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늘었다.

건설업종지수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1년간 13% 하락했다. GS건설 주가가 34.1%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5.7%, 13.8% 하락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건설사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실적보다는 건설업을 발목 잡는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가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月 100만원도 못 벌었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고용조사
근로자 20% 월급 200만원 미만

월급 100만 원을 채 타지 못한 근로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9.2%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201만 원(시간급 9620원)이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203만 명이 월평균 임금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198만 명)에 비해 5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이 25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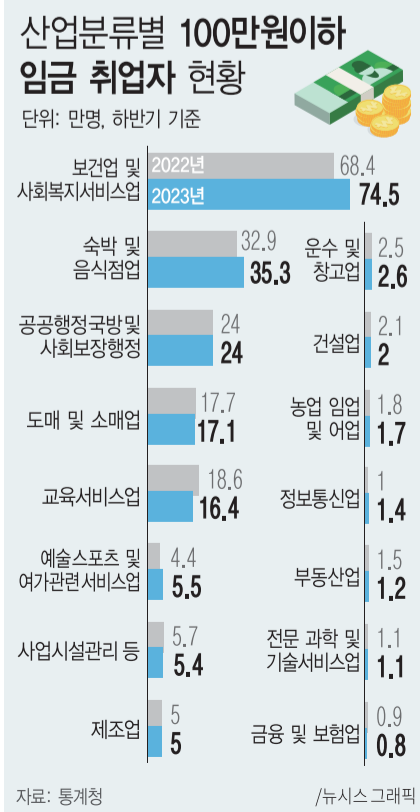
1000명(11.5%)이었다. 이로써 200만 원 미만이 20.7%에 달했다. 이어 200만~300만 원 미만이 732만1000명(33.2%), 300만~400만 원 미만이 474만7000명(21.5%)으로 집계됐다. 월급을 400만 원 넘게 타간 근로자 수는 544만3000명(24.6%)으로 4명 중 1명이었다.

다만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2.7% 감소했다. 200만~300만 원 비중도 0.6% 줄었다. 이에 반해 300만~400만 원과 400만 원 이상은 각각 0.7%, 2.5% 증가했다.

17개 산업 대분류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가 74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만3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업종이 100만 원 미만(203만 명) 근로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24만 명), 도매 및 소매업(17만1000명), 교육서비스업(16만4000명) 순으로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 받은 근로자 가운데 대부분은 관리자, 전문가 등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관리자가 38만6000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6만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무종사자(158만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3만6000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46만1000명), 판매종사자(19만5000명), 서비스 종사자(17만7000명)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0만~200만 원은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 등에서 구성비가 높았고 400만 원 이상은 관리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만 풀체인지?”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킵니다

보장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초과실 형사적 책임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악질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비운전자까지 보정]
해당 특약 가입 시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
NH보험금융 ESG캠페인 서약시 2%

www.nhfire.co.kr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바닥쳤던 리튬값 '반등'... 전기차 배터리 가격 안정화 '기대'

지난해 12월비 리튬가격 26% 올라
중 생산지 이출 환경통제 등 요인
3월 리튬이온배터리 셀 가격 보합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했던 리튬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배터리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코미스에 따르면 리튬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109.5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86.50위안이었던 리튬 가격 보다 약 26% 오른 수치다.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전기를 생성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말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리튬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후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공장 모습.

/LG에너지솔루션

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리튬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을 겪으며 실적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잠정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2% 급감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리튬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일부 광산 기업의 감산과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출 지역 환경 통제 등이 꼽힌다.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해 배터리 가격 하락세도 멈추는 분위기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지난 3월 중국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은 지난 2월과 비슷했다.

셀 유형별로 보면 1Wh(와트시)당 가격을 기준으로 각형 삼원형 셀, 파우치형 삼원형 셀 가격은 각각 0.48위안, 0.

50위안으로 전월과 같았다. 각형 리튬인산철(LFP) 셀 가격만 0.42위안으로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배터리 셀 가격은 작년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월 대비 하락률이 작년 12월 6~10%, 올해 1월 4~7%, 2월과 3월 각각 0~2%로 점점 완만해졌다.

리튬을 비롯해 니켈, 구리 등 메탈 가격이 지난 2월 초부터 반등한 가운데 배터리 업계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중 최고치였던 305위안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트렌드포스는 공급 측면의 감산에 힘입어 1분기 말까지 리튬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할 수는 있으나, 공급과 수요 사이에 가격 결정력이 얽혀 있어 2분기 리튬 가격 변동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업계 최소 크기·두께로 비트 밀도 1.5배 ↑
'채널 홀 에칭' 기술로 업계 최대 단수 뚫어

삼성전자는 23일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Tb) 트리플레벨셀(TLC)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 최소 몰드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다.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이다.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도 높였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토글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

상된 최대 초당 3.2기가비트(Gb)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을 확대해 낸드플래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환경 경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퀵레벨셀(QLC)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성능·고용량 낸드 개발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낸드 매출은 2023년 387억달러(약 53조 3000억원)에서 2028년 1148억달러로 연 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낸드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며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포스가 추산한 지난 1·4분기 낸드 평균 가격은 전 분기 대비 23~28% 상승했고, 2·4분기도 13~1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구남영 기자

하이브 "회사탈취 시도 명확" 어도어 "아일릿, 뉴진스 카피"

국내 최대 엔터 하이브, '어도어 내용'
하이브 CEO, 빌리프랩 등 전직원 메일 발송
어도어 민 대표 "카피 문제제기에 해임 통보"

국내 엔터테인먼트기업 가운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하이브가 최근 내용사태를 겪으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라며 대립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확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분이 80%에 달하는 데다, 하이브가 지분을 외부에 팔 가능성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자사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다. 반면 '아일릿'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이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지난 2021년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가 지분율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2%(7만840주)는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보유하고 있다. 어도어 이사진도 민 대표 측 인사들도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18%와 협력한 PE 지분을 더해 과반을 만들려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어도어가 이사회 개편을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어도어가 비상장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하이브의 지분율을 희석하고 민 대표 측 우호 지분 비율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살제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및 측근으로 구



걸그룹 뉴진스.

/뉴시스

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하이브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유동자산만 약 2조원에 달하는 하이브가 자금 부족의 이유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도어 경영진의 회사 탈취 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감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전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후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CEO는 이날 메일을 통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아일릿과 무관하게 기획된 일이라는 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박 CEO는 "이번 사안을 잘 마무리 짓고 멀티레이블의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뉴진스와 아일릿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포항수협에서 직접운영하는 동해안 자연산 100% 활어회

포항수산업협동조합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1308(송도동)
TEL. 054)256-2770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인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민주당 주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찬성
與 정무위원, 국회 소통관 찾아
“거대야당 입법독주 폐해 심각”
野, 법률안 처리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새로운미래·양정숙·개혁신당·황운하·조국혁신당·강성희·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



김한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떠벌려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말로 민주주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

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중진 “비대위원장, 최소 4선 이상 원내인사 추천”

윤재옥 원내대표, 중진의원 간담회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 치를 생각”
내달 3일 이전 선임 마무리 전망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홍·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주호영·권영세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진의원들은 윤 권한대행에게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힘 당선자 총회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낙선자들 중심으로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당대표) 권한대행이(비대위원장)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한 후보군’에 대해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계셨고, 4선 이상에서 해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면서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권한대행이 고사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안정된 후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고 쇄신을 하겠다는 뜻

으로 보인다.

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시점인 5월 3일 이전에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회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린단 계획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6월쯤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히 당선자들과 중진의원들은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힌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하고,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 전당대회 톨”이라며 “지금 100% 당심으로 뽑지 않느냐. 이번에 다시 최소한 예전처럼 ‘당심 70% 민심 30%’로 복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간다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5대5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조국혁신당, ‘민주당-민주연합 합당’에 교섭단체 구성 난항

지위 얻으려면 8명 의원 더 필요
합당으로 민주당 몫 인사 빠져나가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

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기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쥐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밀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펫보험 가입 1.4% 불과... 보험사, 혜택 강화로 파이 키운다

전체계약 절반 이상 '메리츠화재' 수의사 업계와 협업 체계 구축
삼성화재 '착한펫보험' 선보여
장례서비스·사망보험금 특약
KB손보 '금쪽같은 펫보험' 강화
치료비 보장 확대하고 특화보장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어질리티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보험업계에 펫보험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펫보험 강화 전략을 선보이면서 펫보험 시장 '파이' 키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 대비 51.7% 증가했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

면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현재 펫보험 선두주자는 메리츠화재다.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업계 전체 건수(약 11만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도 선두를 유지하면서 5년 넘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수의사 업계와 손을 잡고 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는 "반려동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호자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목표"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지난 2일 새롭게 출시했다.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은 있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

로 가입을 주저하는 반려인들에서 착안해 고객 맞춤형 보험료를 제시한다. 특히 차별화 전략으로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 반려견 사망 시 보험금 또는 삼성화재 전용 장례 서비스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반려견을 위한 핵심 보장을 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을 준비했다"며 "반려견 장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이별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특화 보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 최초로 주요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II'를 탑재했다. 반려인들의 가입 수요가 높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만을 상향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한 보장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KB금쪽같은 펫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합리적인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으로 행복한 반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속속 펫보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이유로는 펫보험 시장 확대가 꼽힌다.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펫보험 점유율 확보는 물론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파이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정된 파이 안에서 각 보험사끼리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지만 펫보험의 경우 현재는 파이 그 자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더 내고 더 받기' 연금개혁 입법 관심

시민 토론 종료... 보장강화 힘 실려
21대 국회 임기내 합의 안되면 좌초

국민연금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2주간의 토론 결과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하면서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후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야는 대표단이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도출해 입법을 시도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문에 참여한 492인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이외 문항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유지(52.3%),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69.5%) 등 '보장강화 중심' 측 방안이 '재정안정 중심' 측 방안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1차 토론 직전 진행된 1차 설문조사 당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은 36.9%에 그쳤다.

그러나 2차 토론 이후 진행된 2차 설문에서는 50.8%가, 최종 토론 이후 진

행된 3차 설문에서는 56%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토론 과정에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이 '재정안정 중심' 방안의 선택률을 앞지른 것은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보장 부족에 따른 노후 불확실성을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조적 연금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금년도 1인당 기초연금 지급액 평균은 약 33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4만원과 합산해도 노인 빈곤 기준(중위소득의 50%)인 13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도 퇴직자의 99%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있어 '생애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인 빈곤을 억제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대표단이 특정 세대에게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대표단이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된 만큼 개혁 내용에 따라 가

장 큰 부담을 맡게 될 30대 이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보고서를 통해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연금특위에 전달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하고, 21대 국회 임기내 입법을 시도한다.

다만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놓고 민주당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재정안정 중심' 방안을 지지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남짓한 임기를 남겨둔 만큼, 여·야간 합의가 난항을 겪을 시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설문 결과를 놓고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연금 전문가들이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혁"이라고 반박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민은행,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218억 출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사회 취약계층 금융 수요 대응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자율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해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서민금

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마련에 약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생금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1분기 우수 금융본부 시상식 후 이태욱 서울중앙금융본부 본부장(왼쪽부터), 강신숙 은행장, 류수중 전남금융본부 본부장, 윤영수 강원금융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 1분기 세전 당기순익 931억

2024 2차 경영전략회의 개최
환골탈태 캠페인 경과도 공유

Sh수협은행의 세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수협은행은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4년 제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과 임원, 금융본부장, 전국 영업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분기 결산결과, 세전 당기순이익은 931억원을 시현했다.

환골탈태 캠페인의 추진 경과도 공유했다. 환골탈태 캠페인은 강행장의 의지에서 담긴 프로젝트다.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주제별로 분류해 총 37건의 환골탈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올 연말까지 개선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월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행장은 "올 1분기,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2분기도 저비용성예수금과 핵심예금 증대, 적극적인 연체관리, 비이자이익 증대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임랩, 노후진단에 인테리어까지 '원스톱'

GS건설 자회사, 리모델링 서비스

GS건설의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탈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아파트진단에서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임랩 리모델링은 디자인 개선 위주의 리모델링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열, 누수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와 악취, 공기질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고객에게 점검 보고서를 제공한다. 고객 취향에 맞춘 1대 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겸비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한 고객과의 시공 상담을 통해 산출된 3D이미지와 도면을 바탕으로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관리를 통해 높은 시공 품질을 만들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을 통해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임랩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계약, 이력 관리 등을 통합으로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EVS37

LG그룹, 전사 차원 전시관 운영...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유

LG전자 전기차용 플랫폼 소개
LG엔솔 'B-라이프케어' 선보이
LG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제품 등 전시

LG 그룹 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행사에 출동해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한다.

LG그룹은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전기차 행사인 '제37회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VS37은 세계 전기차동맹협회(WEVA)와 아시아태평양전기자동차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로 전기차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LG는 계열사별 특화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다양한 전장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에 LG그룹은 이번 EVS37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EVS37 행사에 마련한 LG 계열사 공동 전시관. /LG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곱이 가능한 파우치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비롯해 더 가벼우면서 안전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한 '셀투팩' 기술,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해주는 'B-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계기판,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 3개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프리미엄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핸드폰이나 TV로 즐기던 고화질 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ACP)을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 P-OLED, 탠덤 OLED 기술 기반으로 가격

컨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 P-OLED, 탠덤 OLED 기술 기반으로 가격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계기판,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 3개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프리미엄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핸드폰이나 TV로 즐기던 고화질 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ACP)을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 P-OLED, 탠덤 OLED 기술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ATO(Advanced Thin OLED), 무안경 3D 계기판과 시야각 제어 기술(SPM)이 적용된 저온 다결정실리콘(LTPS) LCD 제품을,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라이다 등 센싱 솔루션, 커넥티드 카 구현을 위한 '5G-V2X 통신 모듈' 등 차량용 통신 솔루션, 고부가 차량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 등 라이팅 솔루션,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EVS37기조 연설자로 나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LG 연구진은 학술대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와 고장진단 분석',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위한 주요 기술'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LG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알린다.

LG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는 배터리와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LG 계열사들이 전기차 분야에 LG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해서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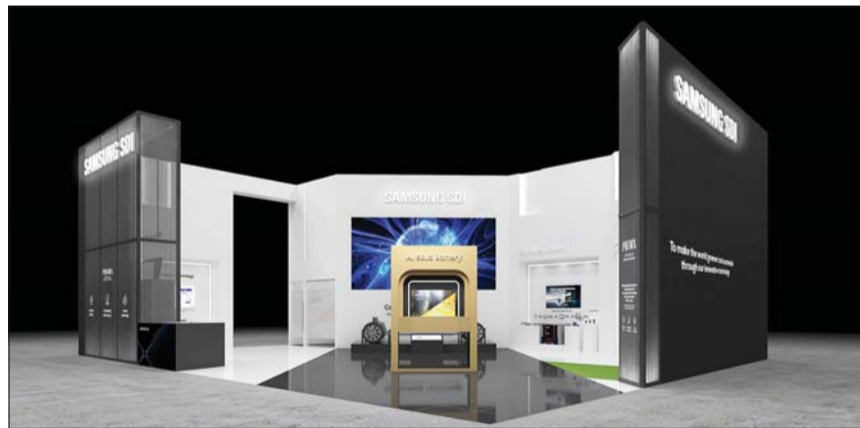
삼성SDI, 초급속·초장수 배터리 등 기술력 뽐내

무음극 등 혁신 기술 대거 전시
열확산 방지 솔루션 이목집중

삼성SDI가 전 세계 석학들에게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SDI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삼성SDI는 지난 전시보다 규모를 2배 확대한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9분 초급속 충전, 20년 이상 초장수명 특성 등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술들을 대거 전시하고 '초격차 기술



2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하는 삼성SDI의 전시회 부스 조감도. /삼성SDI

력'을 강조한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를 부스 전면에 내세워 삼성SDI의 독자적인 무음극

기술과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900Wh/L) 등 ASB(All Solid Battery)의 특징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양산

로드맵을 전시해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초급속 충전과 초장수명 기술도 공개한다. 삼성SDI는 9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2026년, 20년간 사용 가능한 초장수명 배터리 기술을 2029년 양산 목표로 개발해 전기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열폭주 현상'과 관련해 삼성SDI의 열확산 방지 솔루션도 주목된다. 충격이나 화재로 인한 고열과 가스 발생시 각형 배터리의 밴드(배출구)로 빠르게 배출하여 배터리 간 열 전파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외에도 삼성SDI는 46파이 등 신규 제품 라인업과 에너지 밀도는 높고 비용은 줄인 CTP(Cell to Pack) 등 배터리 기술력도 공개할 예정이다.

부스 한편에는 삼성SDI의 ESG 경영 내용도 전시된다. 해당 공간에서는 2차전지 업계 최초로 인증받은 탄소발자국 내용과 RE100 실천 계획 등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고민하는 삼성SDI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와 초급속 충전, 초장수명 특성 등 미래 배터리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삼성SDI의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항균 기능성 소재' 신사업 속도

차이나플러스서 '퓨로텍' 소개

LG전자가 '항균 기능성 소재'를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항균 기능성 소재 '퓨로텍'이 이날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 에서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퓨로텍(PuroTec™)은 Pure(오염되지 않은), Protect(보호하다),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제품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항균 기능성 소재다. 유리

파우더 형태로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소량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를 낸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퓨로텍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비 700% 이상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퓨로텍이 글로벌 B2B를 이끌 주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은 "유리 파우더 연구와 이를 가전제품에 적용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를 B2B 사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북미시장 '키친 패키지' 공급

클레이턴사 신규주택 생활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건설사인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Clayton Home Building Group)'과 생활가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하고, 입주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

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입주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3의 기기까지 연결해 스마트한 홈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익수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 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중, 한국형 LNG화물창 한국가스공사 구상권 청구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결함으로 SK해운에 3800억원을 배상한 것과 관련해 개발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사에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 청구 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시스템, 3000t급 잠수함도 지상서 항해·전술훈련 ‘거뜰’

도산안창호합 훈련장 개발·구축
다기능 콘솔 등 실제 함정장비 배치
첨단기술로 입체적 훈련환경 지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로 앞으로 지상에서도 잠수함 훈련이 가능해진다.

한화시스템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1)의 모의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작업을 끝내고 지난달 말 본격 운용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잠수함 전술훈련장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술훈련장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항해·전술 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훈련실과 통제실, 강평실 등 여러 공간을 나눠 구성했고,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수중·음탐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 무장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훈련실은 함정 전투체계(CMS)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 실제 도산안창호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전투지휘실과 동일하게 구성돼 항해·전술 훈련의 실감도를 높였다. 소나(음파탐지기) 신호를 포함한 함정에 탑재된 센서, 무장 등의 시뮬레이터도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 사업대표(왼쪽 세번째), 강정호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장(왼쪽 네번째·잠수함사령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도산안창호급 전술훈련장 개장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장 상황을 100%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전술훈련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인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 기존 잠수함 전술훈련장과 달리 AI 알고리즘이 자함의 추적·회피를 판단 후 예측 불가능하고 다면적인 기동·교전 상황을 제공해 우리 해군이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지휘 및 전술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지난 2018년 국내 설계·기술로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III(KSS-III)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잠수함 중 하나다.

한화시스템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중 작전 수행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2018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I 전술훈련장비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지원과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잠수함 전술훈련장 국산화에 성공했다.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 사업대표는 “유령·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잠수함 전투체계와 전술훈련장을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 활로 또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실리콘음극재 공장 준공... 연산 550t

전기차 27만5000대 생산 규모

포스코그룹이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사업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19일 포항영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톤 규모 실리콘음극재(SiOx) 공장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객사의 실리콘음극재 공급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준공한 설비는 전체 생산 라인 중 하공정에 해당한다.

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를 4배 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실리콘음극재 시장 규모는 현재 약 1만톤 수준에서 2035년 약 28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은 음극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실리콘음극재 기술 스타트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하고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4월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양성운 기자



SK C&C가 23일 공개한 제조 특화 AI SHE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습.

/SK C&C

전력기기 호황에, 1분기 매출 8010억 달성

HD현대일렉트릭

영업익 1288억... 전년비 178% ↑
공장증설 등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23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매출 8010억원, 영업이익 12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9%, 영업이익은 17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분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16.1%를 기록했다.

제품별로 보면 전력기기 부문이 지속적인 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전년 동



HD현대일렉트릭의 작업자들이 'HD현대일렉트릭 울산 변압기 스마트 공장 투어'에서 코스크 작동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기 대비 70.4% 크게 증가했다. 회전기기 및 배전기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2.2%, 52.8%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1분기 수주는 14억 3800만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37억 4300만 달러의

38.4%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0억 7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설립을 통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2025년 10월까지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1173억원을 투자해 중저압차단기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 능력은 2030년 기준 약 1300만대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과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변압기 공장에 각각 272억원, 18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약 20%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 C&C, 제조 산업현장 AI로 지킨다

‘아이팩츠 SHE’ 안전 플랫폼 공개

SK C&C가 23일 제조 특화 AI SHE 플랫폼 ‘아이팩츠 SHE(iFacts SHE)’를 공개했다.

‘아이팩츠 SHE’는 SK C&C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살아온 SHE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조 산업 특화 SHE(Safety·Health·Environment, 안전·보건·환경) 플랫폼이다. SK C&C는 ‘아이팩츠 SHE’에 전 제조 산업군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SHE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6대 핵심 기능을 탑재했다.

작업 현장 특화 기능으로 ▲안전 작

업허가서 발급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재해사고 및 아차사고를 대비한 ‘사고 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화학물질 인벤토리와 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검토를 하는 ‘화학물질관리’ ▲대기·수질 관리 및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관리’를 구성했다.

공통 SHE 기능은 ▲직원 특수 건강 검진 계획 및 결과 관리,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보건관리’ ▲무재해 관리, 안전 KPI 관리, 법규 및 안전 정보를 관리하는 ‘SHE 경영’을 추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CNS, 구글 서비스 파트너 2년 연속 선정

게임·물류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즈 2024에서 ‘서비스 파트너(Services Partner of the Year)’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즈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수여한다.

LG CNS는 지난해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등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적용해 디지털전환(DX)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AM)를 선도한 점을 인

정받았다. 게임, 물류,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LG CNS는 지난해 국내 A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A사는 AI 모델 학습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글로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B사의 경우, 고객상담서비스에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결합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KT, 에이닷 ‘통역콜’ 국제전화서도 쓴다

국내통화요금 동일 수준 혜택 제공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제휴해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로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통화요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S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에이닷 전

화에서 00700 또는 +국가코드로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통화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분당 108원(VAT 별도)의 요금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요금 혜택은 전 국가 대상이며 별도의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2024년 4월 23일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기존 00700 국제전화요금제(SK텔레콤 00700 프리 부가 서비스, SK텔레콤·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해외·리조트나 유명 맛집에 예약하기 위해 현지 예약 담당자와 통화할 때 국제전화에 대한 요금 부담 없이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휴가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들에게 요긴한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상담문의 1855 -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증권사, 여성임원 비율 8% 그쳐... 최고경영자도 '전무'

전체임원 597명 중 여성은 49명
2022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도
증권사, 규제 준수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되면서 각 업계에서 여성 임원 확대를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8%에 그치면서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각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8.18%에 그쳤다. 전체 임원 597명 중 49명으로, 100명 중 약 8명에 불과한 비중이다. 3연임에 성공하며 자리를 지키던 KB증권의 박정림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금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임원 성비〉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총 임원	여성임원	비율
미래에셋증권	139명	13명	9.4%
한국투자증권	55명	2명	3.6%
NH투자증권	58명	7명	12%
삼성증권	31명	4명	12.9%
KB증권	64명	3명	4.7%
하나증권	45명	3명	6.7%
메리츠증권	53명	3명	5.7%
신한투자증권	60명	7명	11.7%
키움증권	48명	3명	8.3%
대신증권	44명	3명	6.8%
	597명	49명	8.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용투자업계 내 여성 최고경영자(CEO)도 전무한 상황이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12.9%), NH투자증권(12%), 신한투자증권(11.7%) 등의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상위 3개 증권사도 두 자릿수를 소폭 넘긴 수준이다. 증권사 최초로 여성 CEO를 수장으로 맞이했던 KB증권은 4.7%에 그쳤다. KB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여성이사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55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은 단 2명으로 여성임원 비율 최하위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용자산 기준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이사회 총 인원은 59명이지만, 이 중 여성이사는 4명(6.8%)뿐이다. 계

다가 주요 자산운용사 중 여성이사가 존재하는 곳은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단 3곳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성 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업계 자체에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성 임원들의 존재감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다양성 등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사장은 이사회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유럽연합(EU)도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여성(과소대표되는 성별)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사외이사의 성별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성 한국ESG기준원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리포트를 통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율은 0%이거나 10% 미만인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사회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에 비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다양성 측면이라기보다 자본시장법 규제 준수라는 최소한의 의미에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엔터株, '하이브 내홍'에도 2분기 반등 기대

하이브, 전 거래일비 1.18% 하락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화 없을 것"
SM, JYP 소폭 상승... 영향 없어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인기 그룹들의 컴백 등에 업고 2분기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와중에 '하이브 내홍'을 마주했다. 하이브의 주식은 연일 하락했지만 시장은 '단기변동성'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18% 내려간 2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인 22일에 7.8% 하락한 것보다는 낙폭이 적었지만 23일 오전 9시45분께에는 20만25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종가 기준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조7469억원으로 이를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8539억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는 22일 하이브 자본으로 설립한 어도어의 경영권을 민회진 대표 등이 탈취하려 한다며 감사에 착수한 사

실을 공개했다. 이에 민 대표가 "빌리프랩의 아이릿이 뉴진스를 카피(Copy·베끼기)한 문제를 제기하니 날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빌리프랩과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의 별개 레이블이다.

시장에서는 엔터주가 2분기부터는 주요 엔터기업 인기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돼 있어 주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연일 하락한 하이브 주가에 하이브 주주들의 한숨은 깊어진 모습이다.

하이브 주주 A씨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며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 B씨는 "엔터주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아티스트가 아니라 대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이브 내부 갈등 이슈가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을 가정해도 하이브의 중장기 성장동력 훼손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당사 추정치 기준 올해 하이브 내 어도어의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는 14%"라며 "만일 하반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1개의 앨범(하반기 정규)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봤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 멀티플 영향 있겠으나 롱텀 뷰는 변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오히려 "하이브는 장기적 관점에서 멀티레이블 체제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이브의 주가는 떨어진 하루였지만 SM(종가 86400원, 5.58% ↑), JYP엔터테인먼트(6만8200원, 1.0% ↑) 등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엔터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앞줄 가운데), Christian Magoon Amplify 대표이사(가운데 왼쪽),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상무, 박준규 주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22일 미국 뉴욕거래소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뉴욕거래소 '오프닝벨' 참여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 상장
토종 ETF, 美 증시 수출 첫 사례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 상장을 기념해 22일(현지시각) 장 시작을 알리는 뉴욕거래소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프닝 벨 행사에는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임태혁 ETF운용본부장과 크리스티안 마군 앰플리파이 대표, 박준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오프닝벨 이후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와 함께 SOFR ETF 상품 소개 세션을 진행했다.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SOF)는 삼성자산운용의 전략적 제휴사인 A

mplify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고 삼성자산운용 뉴욕현지법인이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SOF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3월 국내 증시에 먼저 상장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구조를 복제한 상품으로 국내 토종 ETF가 미국 증시에 수출된 첫 사례다.

SOF는 미국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SOFR가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 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산출되는 지표금리인 만큼 SOF는 손실없이 연 5% 수준의 하루치 초단기금리를 복리로 쌓아갈 수 있는 달러 파킹형ETF다. /원관희 기자

"반도체 실적부진, 일시적 가능성... 테슬라는 기대감 소멸"

해외주식 Click

SOXL 순매수 1위... 1.1만달러 유입
테슬라 하락에도 8182만달러 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등을 기대하며 반도체주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테슬라 등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4월 16~22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1억1981만달러가 유입됐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3월 7일 51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하며 약

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ASML의 실적 부진과 TSMC의 하향 조정 소식까지 겹치면서 SOXL은 17~19일 3일간 24%가량 떨어졌다.

시장에선 반도체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며 "여전히 AI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학개미들은 반도체주 외에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를 8182만달러 어치 사들였으며,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볼 2배 ETF(TSL)도 1471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주는 지난 15일 직원 10%가량을 감원

한다는 소식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15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40% 내린 14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24일(143.89달러) 이후 약 15개월 만의 최저치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김광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1분기 판매량 쇼크로 인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美 AI·방위산업 ETN 상장

3종목 편입... 업계 최초 상장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을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상장지수증권(ETN)을 한국거래소에 업계 최초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미국 AI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AI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 기준 구성종목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종목이다. 미래에셋 미국 방위산업 TOP3 ETN

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방위산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 기준 구성종목은 RTX,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만 3종목이다.

동일한 구성종목으로 추종 배수를 2배로 한 ▲미래에셋레버리지 미국 AI TOP3 ETN ▲미래에셋레버리지 미국 방위산업 TOP3 ETN도 동시 상장된다.

해당 ETN은 환노출형으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이점도 있다.

/허정윤 기자

김포서는 'OK', 제주선 'NO'? “한국공항공 행정, 주먹구구식”

국내선 보안검색 논란

김포공항서 기내반입 캠핑용 팩
제주공항 측 “규정상 반입 불가”
A씨 “이중잣대 행정에 승객 혼선”



A씨가 제주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걸린 텐트용 알루미늄 팩.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국내선 보안검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김포공항에선 허용하던 기내 수화물을 제주공항에선 반입을 막아 한 승객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주먹구구식 보안검색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제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20시50분에 출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A씨의 배낭속에 있는 물건 하나가 엑스레이(X-ray)에 걸렸다.

A씨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에서 배낭을 열었다. 엑스레이가 감지한 것은 다름 아닌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텐트용 알루미늄 팩 7개였다.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정승호씨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화물칸)수화물로 다시 붙여야한

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전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쳤던 검색 과정에선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배낭을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반입해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제주공항 검색과정에서 걸렸던 배낭속 텐트용 팩이 김포공항에선 무사 통과했다.

A씨는 “김포공항에선 통과한 내용이 제주공항에선 걸리는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항변했다.

보안요원 정씨는 A씨에게 “그럼 제주에 내려올 때 댕던 항공편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게 “항공편이 무슨 상관이나. 무엇을 확인해보겠다는 말이냐. 항공편과 상관없이 타기전 거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 두 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데 검색대 통과후 타는 항공편과

는 무관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타고 내려왔던)항공편을 알려주면 (한시간 정도 남은)출발시간 전에 확인해보겠다는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보안요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또다른 직원이 달려와 보안규정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내민 서류에는 총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텐트뚫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직원에게 “그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김포공항이 잘못된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김포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화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A씨가 추가로 따지자 또다른 보안요원인 부현진씨는 “규정상 기내로 반입이 안되니 빠르게 수화물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걸린 텐트용 팩을 검색요원에서 주고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A씨는 “한창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척 하는 공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7번째)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레 띠엔 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왼쪽 8번째)를 만나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지원·협력방안 논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이퐁시 당서기와 양자면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신규 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 장관이 레 띠엔 찌우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 대규

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요충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활동 외에도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 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오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검검과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 띠엔 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빵 대신 밥”...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

CJ제일제당, 작년 수출액 1600억
북미 소비자, 토핑·사이드디시 활용
‘건강한 탄수화물’ 먹기위해 구매



CJ제일제당이 북미에 수출하고 있는 ‘bibigo Sticky Rice’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햇반 백미’가 북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북미에 수출한 ‘햇반 백미’ 매출이 전년 보다 20.6% 상승한 약 16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년전인 2021년 보다 2배 규모로 성장한 수치다.

CJ제일제당은 북미에서 ‘햇반 백미’를 ‘bibigo Sticky Rice(찰진 밥)’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상온 가공밥으로 백미밥과 잡곡밥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백미밥은 상온 가공밥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하는 제품이다.

가공밥은 CJ제일제당의 7대 글로벌 전략제품(GSP) 중 하나로, 핵심 권역인 북미에서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북미 즉석밥 취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미 소비자들은 ▲라이스볼(rice bowl)을 먹을 때 흰 밥을 토핑으로 올려서 또는 섞어서 먹기

스럽게 늘어났다.

또한 ‘웰니스 트렌드’로 흰쌀밥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북미에서 주로 먹는 탄수화물은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빵류 또는 상대적으로 짠 맛이 강한 볶음밥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흰쌀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실제로 CJ제일제당은 현지 흰쌀밥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4.6%가 ‘쌀이 건강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북미 가공밥 시장이 최근 3년간 평균 13% 성장해 현재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석밥 판매 기업 중 한국식 쌀밥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며, CJ제일제당의 2023년 북미 가공밥 전체 매출은 2021년 대비 1.8배 규모로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들로 북미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역대 최고치

중기부, 작년 127.3조 집계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1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관료지원에 관한 법률(관료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총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대상 기관은 총 854곳이었다.

중기부가 선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는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곳이 뽑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85%, 구매액 3000억원 이상을 별도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추렸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2022년 대비 약 1500억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레미콘 안전환경 정착 힘쓴다

‘위험성평가 따라잡기’ 매뉴얼 발간

유진그룹의 모기업 유진기업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한 근로환경 정착에 힘쓰고 있다.

유진기업은 레미콘업계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레미콘 업계 내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유진기업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과 ‘안

전보건점검 가이드’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이다.

이번에 발행한 ‘위험성평가 따라잡기’는 레미콘 선도기업인 유진기업이 10여년간 24개소의 레미콘사업장에서 실시해온 위험성평가 실행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개요 ▲위험성평가서 작성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사례 등이 이미지 및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김승호 기자

韓녹색기업들, 중국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241억 수출

환경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열분해설비 수출계약 내달 중 체결 5.2억달러 규모 사업상담 진행 성과

우리나라가 중국 녹색산업 시장 진입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산둥성·허베이성 현지에 환경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0억 원대의 수출·수주 실적을 거뒀다.

환경부는 이달 8~13일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보유한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벌였다.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이다.

그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설비 12기, 200억 원이 넘는 수출계약을 오는 5월 중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 링쇄평 대련시 부시장이 인천 서구 소재 에코크레이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약취정장비 18개(약취모니터링사업)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현지기업인 EC Sense and AQS와 대기측정장비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이번에 개척단과 동행한 기업은 ㈜



환경부와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이 이달 초·중순 중국 현지를 찾아 녹색산업 수주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 산둥성 녹색기술설명회 모습. /환경부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에코젠, ㈜에코크레이션, ㈜연합안전건설링, 정우이엔티(주), 창성엔지니어링(주), ㈜TNE Korea 등이다.

환경부는 또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 등과 현지에서 환경협력회의를 열었다. 산둥성 회의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회의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개최됐다. 양국 기관은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지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했다.

이 밖에,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

회가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지난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됐다. 또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도 열렸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녹색산업 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0개사에서 총 177건,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며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영농형 태양광’ 활용해 농가소득 높인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 회의 농식품부, 도입 촉진 3대 전략 발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기여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인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 및 수익 수혜자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도입 촉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메트로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

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과태료·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담아 보관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기로 했다.

김영중 원장은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5년 미만 근무 장교·부사관 등 가능

단기복무 군간부도 전역을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 29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 수준이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이나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17개 기업과 ‘동행매력정원’ 선택

기업 가치·매력 담은 특색공간 조성

내달 16일 서울 독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국내·외 기업들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동행정원’은 각 기업의 가치와 매력이 담긴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며,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돼 독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

이다.

업무협약은 지난 18~19일과 23일 총 3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참가 기업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등 총 17개사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캐릭터 정원을 만들고,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그린 플러스 도시 숲을 조성한다.

시는 QR코드를 통해 정원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입구에 ‘정원 안내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4년 5월 13, 2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9시 (2일간)
B반 : 2024년 5월 2, 9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2일간)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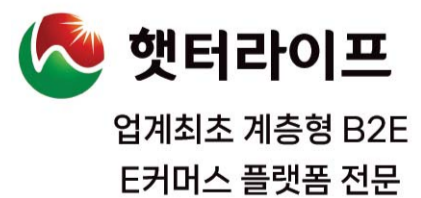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목포시, 베스타스·머스크社 ‘해상풍력 터빈공장’ 유치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

3000억 투자해 목포신항 내 건립
2027년 양산 목표로 진행 계획
지역 내 산업생태계·신항 활성화



목포시(박홍률 시장)은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 ‘베스타스’ 공장 유치 /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포시의 포부가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A.P. 폴러-머스크 A/S(이하 머스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신규투자를 위해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유항만시설 및 산업활성화 가능성 등 투자여건을 면밀하게 타진해왔고, 최종적으로 목포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3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목포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20만㎡(약 6만여 평)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

하고,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해 목포 신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홍률 시장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기업이 목포시에 투자를 확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재생에

너지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신항에 잘 자리잡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목포 신항이 해상풍력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전용 인프라 확충, 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회발 전특구 지정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산업 측면의 한계에 봉착한 전남 서남권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상풍력 신산업을 통한 유관기업 대거유입,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교육청홍보단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 나광국 의원은 지난 18~19일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홍보단과 의원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 기관장 면담 등의 활동을 펼쳐 해당 기관들의 참여를 약속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영양-북영덕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영양 농협(조합장 양봉철)과 북영덕농협(조합장 서석조)직원들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55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 지자체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영양농협 직원 55명과 북영덕농협 직원 5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서로의 지자체에 10만 원씩 각 550만원을 기부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

‘100+4 피아노섬 축제’ 개최

신안군 자은도의 아름다운 양산해변에 위치한 1004뮤지엄파크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섬의 파도를 타다’를 주제로 한 이번 ‘100+4 피아노섬 축제’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104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날에는 ‘100+4대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린다. 다음날에는 개별 피아니스트들의 연주와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나도 100+4 피아니스트 공연’, 그리고 전국에서 예선전을 거친 20팀의 ‘보라해 댄스 대회’가 펼쳐진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김해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박차

김해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해, 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내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열관리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4종 구축 ▲열관리 부품전환 기술사업화 패키지 및 부품개발 애로기술지도 등 기업지원 ▲지역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와 인제대학교가 수행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내달부터 ‘K-패스’ 시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20%, 청년 30% 등 환급

경상남도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월 교통비의 20~53%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성인 20%, 청년 층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한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 발급은 오는 2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카드사별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 10% 추가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후, 5월 1일부터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K-패스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했다. 알뜰교통카드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일일이 기록해야 했지만, K-패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동의절차를 거치면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남은행과
특별출연금 전달·상생금융 업무협약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23일 시청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남은행과 함께 경기 침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출연금 전달식’ 및 ‘상생금융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예경탁 울산경남은행장, 이상봉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출연금 전달식’에서는 울산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특별출연금 30억원을 울산시에 기탁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아 15배인 45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에 나선다.

이어 진행되는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은 울산시와 울산경남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도로공사, 김천 초등학교 학생 위해 수영장 개방

학생들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지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사육내 수영장을 개방·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9년부터 김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김천 울곡지구 4곳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김천지역 전체 14곳 초등학교 학생 1674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2019년 5월 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수영장을 개방했다.

본관 4층에 있는 수영장은 총 면적 2000㎡로 성인풀(25m×6레인), 어린이풀(80㎡), 온수풀 뿐만 아니라 고객 휴게공간, 전용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현재 기자 hjkoo@



도로공사 수영장 개방

수영장은 지난해 기준 누적 이용객 9만 명을 달성했고, 월 평균 이용객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김수환 팀장은 “수영장 외에도 길벗 도서관, 옥외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담양 ‘죽향·메리퀸’, 1억 로열티 받는다

인니 코린도그룹과 계약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 본사에서 담양육성 딸기(죽향, 메리퀸)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한국 제외동포 기업)이며 TSE그룹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곳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어반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담양군과 TSE그룹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

으로 담양군은 1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TSE그룹은 담양군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도심 및 근교에 대규모 딸기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딸기 연중 재배, 재배 면적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딸기 시식 테스트 결과, 죽향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돼 향후 담양딸기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세요... ‘제로’ 매출 500억 목표”

헬씨 인터뷰

롯데웰푸드 ‘제로’ 팀

롯데웰푸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주목, 제과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특히 건강을 신경쓰면서 맛도 포기 하지 않는 헬시 플래저 트렌드에 맞춰 부담없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수 있게 ‘ZERO(제로)’ 브랜드를 기획했다.

2022년 6월 론칭한 제로는 MZ세대와 당류 섭취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126% 신장해 4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을 만나 ‘제로’ 브랜드 기획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제로 론칭 후 소비자 반응과 회사 내 반응이 궁금하다.

“출시 전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있었지만, 간식 시장에서 과연 제로 콘셉트의 제



새로 출시한 제로 아이스크림 라인업. /손진영 기자

설탕만 빼게 아니라 ‘당류 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 완성도 높여

국내외서 ‘후르츠젤리’ 가장 인기 니즈 파악, 빙과 4종 새롭게 출시

품이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매출도 성장세이다 보니 지금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

-제과류에 설탕을 빼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브랜드 론칭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도 수차례 진행했다. 라인업이 갖추어진 지금도 신제품을 출시할 때면 콘셉트를 정하고 제품의 맛을 완성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제로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설탕만 빼는 것이 아니라 ‘당류 제로’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무설탕 제



제로 브랜드 팀 원한솔 담당(왼쪽), 박승수 팀장(왼쪽 두번째), 김희지 담당, 신동현 담당(오른쪽)이 제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품은 재료에 설탕만 첨가하지 않으면 되지만, ‘당류 제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당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우유와 분유, 견과류 등의 원료도 사용에 제한이 있다. 또 제과에서는 설탕이 제품의 형태와 식감을 완성하는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소량 집어넣는 것으로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의 형태(굳기, 식감, 형태 보존성 등)를 동일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자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차례 진행했고, 테스트 결과를 제품에 반영해 맛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쿠키,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제품군이 다양한데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은 제품군은?

“소셜 네트워크 상 언급량과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후르츠젤리다. ‘설탕과 당이 없는데도 일반 젤리와 맛이 똑같다. 칼로리도 25% 낮춰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대형마트에서 매출 1위가 젤리이고, 해외 바이어들도 젤리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출시한 아이스크림이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올해 라인업을 확장했다.”

최근 롯데웰푸드는 제로 빙과 4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강화했다. 신제품은 제로 트리플 초콜릿바, 제로 쿠키앤크림 바, 제로 딥 초콜릿 파인트, 제로 쿠키앤크림 파인트다. 소비자 조사에서 제로 브랜드로 출시되었으면 하는 제품에 항상 ‘아이스크림’이 1순위에 이름을 올려 회사가 제품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칼로리와 당을 줄인 제품에 열광하는데,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래 사는 것’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때문 것 같다. 아직까지 양산 제과 시장 내에서는 롯데웰푸드 제로를 제외하고 전문적으로 설탕과 당류 제로를 구현한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저희 팀은 ‘설탕을 빼면 맛이 없다’라는 선입견과 같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제로 브랜드로 5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제로 제품들이 설탕이 들어간 다른 제품들보다는 칼로리가 낮지만, 칼로리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도 연구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맛있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워홈, AI 초개인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카카오헬스케어와 업무협약 체결 축적 기술셋·노하우 등 공유하기로

아워홈은 카카오헬스케어와 AI기반의 ‘초개인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AI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공동연구에 돌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아워홈의 2만여 영양식단 관련 R&D 원천 기술 및 데이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혈당 관리 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 영양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초개인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캘리클럽’과 ‘파스타’를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



22일 ‘아워홈-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에서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왼쪽)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워홈

셋, 데이터 및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파스타’는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이다. 연속혈당측정기(CGМ)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와 이용자가 입력한 식단, 운동, 수면 등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자

체 AI 플랫폼이 분석해 최적의 건강 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식약처 인증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아워홈은 캘리클럽을 통해 선보이고 혈압, 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 관리 식단 구성 역량이 파스타가 가진 AI 혈당 관리 기술, 텍스콤 G7의 정확도 높은 혈당 측정을 더해 보다 정밀하고 심도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는 “아워홈의 최고 자산은 오랜 기간 수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식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액티브한 데이터”라며 “특히 확보된 국가, 고객별 메뉴 선호도와 식단 영양 밸런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과 관련된 개인맞춤형 식단 고도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캐나다 무역사절단, SSG닷컴 물류시설 견학

한국 유통시장 이해도 높여

캐나다농식품분야무역사절단이 SSG닷컴을 방문해 유통·물류 혁신 현장을 살폈다.

SSG닷컴은 캐나다 국제무역부와 푸드테크 및 농식품 분야 17개사 관계자들이 이뤄진 무역사절단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이마트 점포 내부에 위치한 ‘EOS(Esmart Online Store) 청계천점’에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한국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방문했고, 이마트 판매 공간과 물류 거점을 결합해 운영 중인 도심형 하이브리드 물류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온라인 고객이 그로서리 주문 시 1500평 규모의 자동화 설비를 통해 집품과 포장 이 이뤄지며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SSG닷컴 관계자와 캐나다산 상품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세계라이브쇼핑, 조선히otel 총각김치 판매

오늘 오후 3시부터 방송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조선히otel앤리조트와 협업을 통해 조선히otel 총각김치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방송하는 조선히otel 총각김치는 100년의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호텔의 노하우로 만들어졌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단독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현지 호텔 셰프가 개발에 직접 참여해 재료부터 생산까지 함께 준비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테스트와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검증된 맛을 선보인다.

조선히otel 총각김치는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했으며, 참송이버섯과 다시마를 기반으로 한 조선히otel만의 비법 육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또 통으

로 된 총각김치의 아삭함과 부드러운 무척의 식감, 단맛과 양념의 조화로 익을 수록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고객들은 주문만 하면 집에서 호텔 수준의 총각김치를 맛볼 수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2016년 처음 조선히otel과 협업해 포기김치를 판매했으며 누적 판매금액이 200억 원을 넘어섰다. 또 작년부터는 협업을 확대해 갈비탕과 육개장, LA갈비 등을 단독 론칭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총각김치까지 선보이게 돼 고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최빛나 기자

현대백, 남양주에 국내최대 ‘디즈니 스토어’

약 180평 규모 6호점 26일 오픈

현대백화점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즈니 스토어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와 손잡고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윈 2층에 디즈니 스토어

6호점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윈 디즈니 스토어 매장은 약 180평(591㎡) 규모로, 현대백화점이 현재까지 오픈한 디즈니 스토어 전체 매장 중 면적이 가장 크다. 기존 최대 매장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디즈니 스토어(545㎡)다. /최빛나 기자

디즈니 스토어 6호점은 완구,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수집 용품 등 1500여 종의 다양한 상품과 함께 가족단위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매장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디자인한 약 30평(100㎡) 규모의 고객 휴게공간 겸 디즈니 브랜드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최빛나 기자



화장품제조사, R&D 투자 확대 '피부전달체' 등 신기술 쏟아져

지난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력

**코스맥스 500억 이상 R&D 투자
한국콜마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K뷰티' 흥행과 함께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사들이 연구개발(R&D)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2023년 R&D 비용 증가폭을 두 자릿수로 늘렸다. 코스맥스의 R&D 비용은 2023년 기준 542억원으로 2022년 484억원에서 12% 증가했다.

코스맥스는 중국과 미국법인에서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맥스 차이나는 2023년 R&D에 254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2022년 218억원 대비 16% 늘린 규모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에서 1.31%포인트 늘어난 6.35%를 기록했다.

코스맥스 USA는 2023년 R&D 비용으로 61억원을 썼다. 2022년 29억원

에서 110% 급증했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의 비율도 상승했다. 2022년 3.48%에서 4.38%로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맥스는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과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 22일 '세라마이드'의 결정화 문제를 해결하는 신개념 피부전달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개선하는 핵심 소재로 더마 화장품 개발에서 주요하게 활용된다. 세라마이드는 물에 녹지 않는 결정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제품 내에서 세라마이드 결정화가 진행돼 화장품 제형의 점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코스맥스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진웅 교수 연구팀은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세라마이드의 결정화를 억제하고 화장품 성분의 안정화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코스맥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문제성 피부에 효능을 가진 피부 마이크

로바이옴 성분도 개발했다. 코스맥스는 아토피 같은 문제성 피부 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성 제제를 대체할 병원용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콜마도 R&D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콜마의 2023년 R&D 비용은 1274억원으로 2021년 1051억원에서 2022년 122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1년 6.99%, 2022년 6.48%에서 2023년 5.79%로 감소했다.

한국콜마는 올해 피부 광노화 억제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더마테스트와 새로운 화장품 효능 평가법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탈모 완화 기능성 원료인 고삼뿌리추출물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뷰티 업계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R&D에 지속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제품개발에는 기술융합이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만나보세요"

매일유업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어메이징 모닝식당' 이란 콘셉트로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삼바에피스, '피즈치바' 유럽 품목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문을 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프로젝트명 SB17)'의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한 후 약 2개월 만의 성과다.

'피즈치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 의약품 스텔라라는 안센이 개발한 관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스텔라라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오는 7월에 만료된다.

아울러 이번 유럽 허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2, 휴마라 바이오시밀러 SB5 등 중양과사인자 알파(TNF- α) 억제제 3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선보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 9월 스위스 산도스와 피즈치바의 유럽 및 북미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 판매는 산도스가 맡는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도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B17의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CA102' 파이프라인 확보 (유전자치료제)

큐리진 계약... shRNA 기술 적용
표재성 방광암 치료제 개발 계획

종근당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폭넓게 구축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RNAi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큐리진과 '유전자치료제 CA10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CA102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종근당은 CA102를 독점 연구해 표재성 방광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종근당에 따르면 CA102는 다양한 암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분자를 인식하도록 개조한 중앙용해 바이러스에 shRNA를 삽입한 유전자치료제다.

특히 큐리진의 독자적인 이중표적 shRNA 제작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CA102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통해 암세포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



종근당 본사 전경.

/종근당

자 mTOR과 STAT3를 동시에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처럼 이 약물은 중앙 특이적으로 작용해 안전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두 유전자를 이중표적해 항암 효과를 강화할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것이 종근당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방광암은 치료에 주로 화

학요법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광암 치료에도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내성 발생과 높은 재발률로 치료제 선택의 폭이 좁다. 그 결과 방광 적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방광암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종근당은 서울성모병원에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를 개소해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우수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다수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핵심 기술 플랫폼 확보 등에 주력하는 중이다.

이밖에 종근당은 최근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도입해 ADC 항암제 개발에 나섰다. 또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및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과 전략적 투자 및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 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튀르키예 등 해외 판로 개척

5개국 총판·대리점 계약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다 양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4월 기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몰도바, 몽골, 멕시코 등 5개국 현지 업체들과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계약을 체결한 태국과 카타르를 포함해 올해만 총 7개국의 해외 판로를 확보했다.

이번 5개국과의 계약은 모두 에이피알 브랜드 중 '메디큐브' 브랜드 사업으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

브 에이지알'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와 몽골 업체와는 총판 계약을, 튀르키예, 몰도바, 멕시코 업체와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에이피알은 현지 시장의 사정 및 예상 판매량 등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에이피알은 IPO 당시 밝혔던 해외 판로 확대 약속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英·獨 등 시장 점유율 상승"

유럽 주요 국가서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피하주사 제형(SC) '램시마SC' (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처방 확대와 함께 램시마 제품군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램시마SC와 정맥주사 제형 램시마가 기록한 시장 점유율은 약 74%에 이른다.

해당 국가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유럽 전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호실적에 대해 셀트리온은 '이중 제형 효과'로 램시마SC와 램시마 두 제품 모두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쟁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제형 제품에서 램시마로 전환한 후, 다시 램시마SC로 처방하는 전략이다. 특히 램시마SC가 출시된 2020년부터 3년간 합산 점유율은 12%p 올랐다.

/이청하 기자

롯데월드, '월드 오브 라이트' 선봬다

어드벤처 35주년 맞아 신규 퍼레이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원 35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신규 야간 퍼레이드 '월드 오브 라이트'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퍼레이드는 매일 오후 8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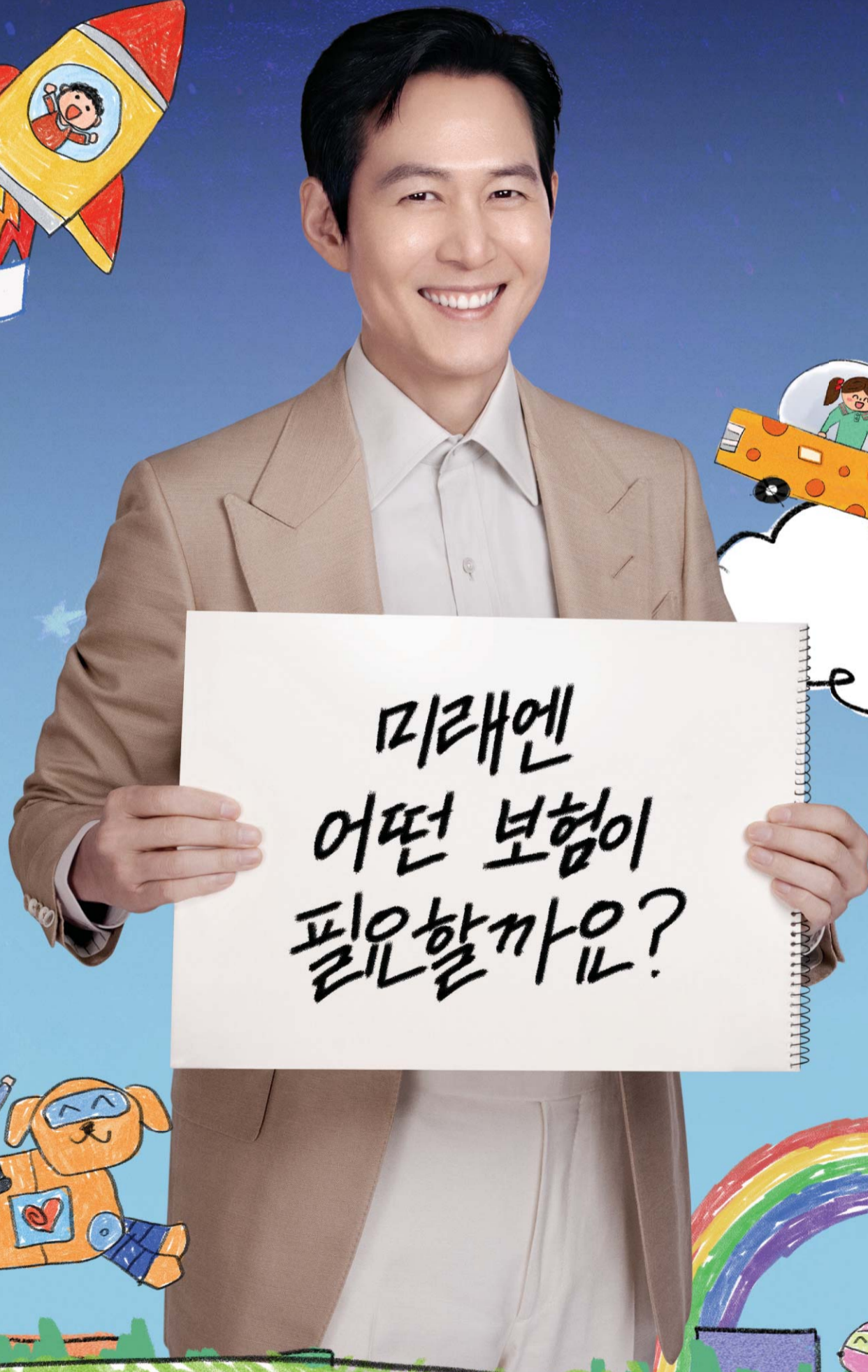
롯데월드 관계자는 "월드 오브 라이트는 퍼레이드 개발에만 100억원 이상의 투자비와 세계 유명 테마파크 공연

기획 및 연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했고 다채로운 특수 효과가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쇼까지 더해 화려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퍼레이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빛이 어드벤처의 대표 캐릭터 로티, 로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만든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이든 먼저 움직이는 **현대해상**



우주여행자보험

플라잉카보험

로봇펫보험

미래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오비맥주, 육군학생군사학교 1000만원 위문품 전달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온누리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훈련일정을 소화하며 대인지원 등 나라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영업부문 부사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김동호 소장, 김부영 충청권역 본부장(왼쪽 네 번째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키움증권,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6000만원 전달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서울아동복지협회와 자립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동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 이소영 서울아동복지협회 회장,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유한양행, '숲 가꾸기' 활동... 도토리 묘목 등 식재

유한양행이 사업장 인근 생물 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일 서울 노을공원에서 '노을공원 숲가꾸기'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그동안 임직원 300여 명이 각 가정에서 직접 키운 도토리 묘목을 가져와 노을공원에 옮겨 심었다. 또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의 묘목도 식재했다. /유한양행



메인비즈協-KAIST,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맞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 3번째부터)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코웨이 블루힐스 농구단, 휠체어농구대회 우승

코웨이 블루힐스 휠체어농구단이 고양특례시장경 제 29회 휠체어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코웨이 블루힐스 휠체어농구단은 창단 1년 만에 휠체어 농구를 치러는데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전승을 기록하며 휠체어농구 신흥 명문 구단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코웨이

LG U+, 천안시 '지능형 교통시대' 연다

'AI스마트 교차로' 등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천안시에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통해 천안시민에게 차별적인 교통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ITS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2005년부터 ITS를 구축하기 시작한 천안시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율주행,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 등 미래 교통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천안시 13개 주요 도로에 ▲AI스마트교차로 ▲AI보행신호연장시스템 ▲바다형보행신호등 ▲DSRC-RSE(노변기지국)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 등 5가지 첨단 솔루션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롭게 설치된 AI스마트교차로는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AI 영상인식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한다. AI보행신호연장시스템은 AI가 사람을 인식해 노인, 영유아 등



LG유플러스가 AI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천안시에 구축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천안시에 설치된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을 점검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교통약자가 길을 건널 시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늘려준다. 바다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더욱 쉽게 신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사고를 예방한다.

노변기지국의 경우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 기지국 사이 정확한 소요 시간을 산출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은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 시 전광판을 통해 우선신호 상황을 즉시 알려준다.

LG유플러스는 관제센터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분산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빅데

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현황, 통계, 솔루션 운영 상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강릉시 ITS, 세종시 자율주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등 첨단 지능형교통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천안시 ITS사업에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상무)은 "천안시를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AI기반 기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 수상

지역사회 나눔 실천 앞장 조성호 대표 "더 열심히 봉사"

공영홈쇼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2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적십자회원 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 '명예대장'은 누적 기부 금액 1억원 이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선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영홈쇼핑은 강원·경북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를 비롯 포항시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튀르키예·시리아 복구지원 기부 및 올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 성금 기부 등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으로 대한적십자 활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오른쪽)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박중술사무총장으로부터 명예대장 유공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아울러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경문제 등 공공기관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화상어린이 환자 의료지원, 미혼모시설·아동 양육시설 기부, 결핵협회 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회의와 추진하는 사랑의 쌀나눔 캠페인, 마포복지재단과 진행하는 어르신효도밥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주신 귀한 상은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이라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CJ나눔재단, '꿈키움문화 다양성 교실' 2배 확대

400곳 모집... 6000명 교육 제공

CJ나눔재단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2024년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 다양성 교실(이하 '꿈키움 문화 다양성 교실')'을 올해 2배 확대해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4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CJ나눔재단은 올해도 해당 협약을 이어가며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꿈키움 문화 다양성 교실'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문화 다양성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동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도 문화 다양성 교수학습법을 제공해 전문성 개발 및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수재 등을 활용해 각 센터에 맞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해 현장의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 대비 모집 기관 수를 2배 늘려 총 400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모집해 400명의 교사와 6000여 명의 아동에게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라면 오는 5월 22일까지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포스코, '비욘드' 단원 모집

포스코가 글로벌 나눔인재로 성장할 단원을 찾는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Beyond)'가 17기 단원을 모집한다. 포스코는 2007년부터 비욘드 단원을 선발해 현재까지 1400여 명의 나눔인재를 육성해왔다.

'비욘드'는 '여기, 바로 지금을 넘어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07년 창단했다.

올해 선발되는 비욘드 17기는 7월 발대식과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비욘드 숲'을 조성한다. 이어 포항과 광양에서 조별 기획봉사활동·포스코 재능봉사단과 연합 봉사활동 등을 펼친다. 학기중에는 지역 조별 봉사활동·자기주도 봉사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하대 '엔지니어 위크' 성료

인하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국제 심포지엄 '엔지니어 위크(Engineering Week)'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하대 공과대학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공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엔지니어 위크를 진행했다.

남궁홍 삼성E&A 대표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남상훈 현대HD 부사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글로벌 공학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현진 기자 ih@

나라셀라-쿠첸 "너랑셀라" 도전하세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프리미엄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협업해 '너랑셀라' 4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너랑셀라'는 지난해 9월 1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단기 와인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너랑셀라' 4기는 알토아디제의 아이콘 와인 '칸티나 트라빈' 와인 5종을 만나볼 수 있고, 와인과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를 '쿠첸 트리플' 밥솔의 세가지 압력을 활용해 직접 만드는 쿠킹 클래스도 함께 진행한다.

너랑셀라 4기는 참가 신청은 오늘 28일까지 나라셀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원선기자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부음

▲조현호 씨 별세,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 22일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25일, 태안 장산리 선산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Festa & **green**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자존감과 자만심의 높은 장벽



신세철의
쉬운경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나타나야만 한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조화를 이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의견이 일시불란하기보다 서로 달라서 타협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적 의견이 도출된다.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황금률(黃金律)을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존감을 중시하였다. 반대로 원칙 없이 편을 갈라 무조건 동조하거나, 덮어놓고 질시하는 막장 사회에서는 제 입장만 생각하는 자만심이 판쳐 미래가 없다.

자존감은 품위를 지키려는 자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달으려는 자세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도덕적 동기의 근본으로 여겨진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힘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거나 나아가 남을 힘으로 억누르고 싶어 하는 행실이다.

시기심과 사촌인 자만심이 높다 보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발전 노력도 하지 못한다. 자존감은 권력과 명성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끈고 바르게 살았음을 긍지로 여기는 명예로운 자세다. 자만심은 속임수와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쌓아 올린 벼슬이나 재물을 뽐내려 든다. 자존감은 선비정신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자만심은 장돌뱅이 심보로 순식간에 변해가다 무너져 굴욕으로 추락한다.

자존감과 자만심을 혼동하다 보면, 쓸데없이 으스스대며 남에게 엉뚱한 피해를 주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나락에 떨어진다. 자만심에 빠진 얼치기 인사들을 후하게 대접하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얽잡아 본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만심에 빠질수록 누군가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히려 든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여간해선 어렵다."고 한다. 쓸데없이 남을 업신여길수록 이면에는 노예근성에 젖어 있어서, 정면 공격을 당하면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굽신거린다.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다르

면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야 가능성이 높은 조직과 사회가 된다. 생각이 다르다고 덮어놓고 대립하고 혐오하다가 가는 공동선(共同善)을 해칠 수밖에 없다. 자만심이 지나치면 얼토당토않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입장을 외면하다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 해진다. 사람 사는 이치를 무시하고 저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자만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고치기 어려운 마음의 병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된다. 결눈질에 익숙한 폴리페서(poli-fessor) 중에는 엉뚱하게도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사촌 간으로 착각되기도 하지만 장벽은 너무나 높아 개과천선해야 넘을 수 있다. 자존감 높은 정치가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신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생각하고 실천하려 든다. 자만심에 물든 정치꾼들은 잠꼬대처럼 "국민 여러분"을 외치지만, 본심은 자신과 패거리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자존감 넘치는 정치가를 뽑아 밝은 미래를 향하느냐? 자만심에 얼룩진 꼬리표를 뽑아 조롱받느냐? 유권자 평균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경제칼럼니스트

'경제·사회 부정지표' 죄다 선두권인 한국



김연세의
정치수첩

이제 곧 2025년도분 최저임금 논의의 막이 오른다. 시간급 1만원 진입 여부를 비롯해 업종별·연령대별·노동 간 차등 적용 등이 관건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국제기준에 빚낸 공방이 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 제시가 단골이다. 인상폭 관련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관보 고시시한이 임박하면 표결로 결정한다.

차등 적용의 경우, 입법의 영역일뿐더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합의안도 출이 난만한 쟁점이다. OECD 사례를 꺼내들어 비교하는 것, 객관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더 나아가 경제·사회

른 분야의 한국 위치를 되짚어 보는 것도 관찰을 뜻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38개 회원국 중 중간쯤인 것으로 파악된다. 차등 적용은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없는 곳이 있다. 국내 관련 법률상 업종별에 한해 차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도입 첫해인 1988년을 빼면 이후 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부문 여럿에서 선두권에 속해 있다.

우선 고용 부문만 봐도, 전체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이 한국은 27.3%로 OECD 2위(2022년 기준)에 올라 있다. 2018년에 7위였다가 4년 만에 5계단이나 뛴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는 작년까지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체 근로자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는 데다 여성 고용률은 십수 년째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 했지만 결과물은 역시 초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2012~2022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은 가장 가팔랐다(+49.8%p).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도 OECD 회원국 중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또 15세미만 유소년인구 비중의 낮은 순랭킹에서는 1위를 다년간 지키던 일본마저 제쳤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 분야에선 지난 2000년 11.2명에서 2022년 기준 26.2명으로, 증가 속도가 회원국 중 3위였다. OECD 추산 등에 따르면 오는 2075년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수가 78.8명으로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법률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한편, 이 같은 연례 논의를 임금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비교에서 취약한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 **48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이런 날도 다 있구나. **60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래가 순조롭다. **72년생** 시작과 마무리는 산뜻하게. **84년생** 인연을 맺은 이상 믿지 못한다면 살 수가 없을 것.
- 37년생** 작은 구멍 하나로 독이 무너질 수 있다. **49년생**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니 최선을 다해라. **61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한 날. **73년생** 사랑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이 있다면 오늘 마무리하자. **85년생** 결국 담배를 끊는다.
- 38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50년생**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준다. **62년생** 해야 하지 않을 것에 힘쓰지 말자. **74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86년생** 모방심리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 39년생** 태양이 건재하니 꿈을 버리지 마라. **5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63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즐거운 날. **75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지자. **87년생** 설물이 되면 바다의 바닥을 볼 수 있다.
- 40년생** 어제의 미풍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52년생** 재물이 있으면 유혹도 다르기 마련. **6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히. **76년생**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스럽다. **88년생**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는듯하다.
- 41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53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가 보자. **65년생**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77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 **89년생** 자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 42년생** 날세 탄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한 법이다. **66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78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90년생** 빈천하면 사람도 인젠가 부귀해진다.
- 43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유의. **55년생** 상대에게 감사하며 행복을 느낀다. **67년생** 하루 세끼의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도 생각해라. **79년생** 주변에다 때마다 기쁨일에 목숨 걸지 마라. **91년생**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 44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라. **56년생**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좋은 결과를 오게 한다. **68년생** 재물의 소중함을 인식. **80년생**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92년생**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성공을 이룬다.
- 45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의논해서 처리하면 잘 해결. **57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 **69년생** 오늘 준비하면 내일이 덜 힘들다. **81년생**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93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 46년생** 고난을 만나도 살아있다는 기쁨이 있다면 해결된다. **58년생** 병도 약도 자신의 손안에 있다. **70년생** 학문에는 무엇인가 쉬운 길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도록. **82년생** 큰소리치다 낭패됨. **94년생** 실패자는 늘 안 되는 이유만을 나열한다.
- 47년생** 힘들어도 하던 일을 계속해야. **59년생** 한날 잡초도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법이니 노력의 보답은 있다. **71년생** 감정절제가 필요. **83년생** 인간은 습관의 묶음이라 했는데. **95년생** 사주의 이해로 양보하여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김상회의 四季

불면증과 천살 방향



상담을 온 L여인은 가족사를 물으러 왔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 밤이 무섭다며 울상을 짓는다. 잠의 중요성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잠만한 보약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머리만 대도 잠이 드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은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러움의 찬사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유발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지기도 했고 따라서 더욱더 질 좋은 수면 즉 잠이 화두가 된 시대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낮이나 밤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전자과에 노출이 되고 있다. 잘 때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머리맡에 놓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으니 현대인은 돈 없이도 노릴 수 있는 잠이라는 보약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잠도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팁을 알 수가 있다. 자신에게 맞는 잠자리 방향을 잘 알아도 건강을 유지한다. 책상을 놓는 자리도 자신의 일주에 맞춘 반안살 방향에 놓으면 공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듯이 잠을 잘 때 천살天殺 방향만 피해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천살 방향은 자신의 일주日柱 기운에 흉작용을 하는 방향이다. 병원에 있는 경우는 어찌할 수 없겠으나 집안에서 취침할 때 최소한 천살 방향은 피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 되는 일주의 자기장에 극하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신살神殺중 하나로 천재天災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천살은 관사官事또는 사상死喪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역서易書에는 말한다. 이유 없이 잠이 잘 들지 않거나 가위가 자주 놀리는 등 흉몽이 잦다면 무엇보다 잠자리부터 바꿔 볼 것을 생활 속의 역학으로 추천드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3				8
			6			9		
	5			1	8			
8		4		9				2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4	

서울, '국제 관광도시' 발돋움... 투어·공연 등 콘텐츠 활성화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등 착수 인근 지역 분석 콘텐츠 활용 검토 관광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23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미래 관광시장 육성, 서울스타일 매력 콘텐츠 활성화, 미래지향적 관광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재단은 미래 관광 먹거리 찾기의 일환으로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풍납토성과 인근 지역 관광 환경을 분석해 관광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부지 일대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 역사문화콘텐츠 전문가와 함께 풍납토성 관광상품을 기획해 동남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3·3·7·7(3000만 관광객·1인당 지출액 300만원·체류기간 7일·재방문율 70%)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서울이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관광객(외국인 환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 관광 기초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무슬림(동남아·중동 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고 한강 수변 체험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스타일의 매력 콘텐츠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약자 여행 활동 지원책의 일환으

로 장애인 기관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나 미니밴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하고 여행용 보조기(해변용 휠체어 등)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를 제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관광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재단은 쉬엄쉬엄 한강 철인 3종 경기와 연계한 수변 체험 여행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올 5~6월 독서한강공원에서 대규모 한강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고래 조형물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관광업계 지원과 관광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달 1~22일 재단은 시 전역에서 서울스프링세일을 개최해 서울 소재 쇼핑·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당 기간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행사 참여 업체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K-팝, 전통 공연을 상시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행사에서 C2C(개인 간 거래) 형태의 플라마켓 이벤트 확대 운영을 통해 특색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단은 강조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으로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높인다. 디스커

버서울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장의 카드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일정 시간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서울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테마파크, 유람선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교통·쇼핑·공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단은 기존 24·48·72시간 권이었던 디스커버서울패스 권종을 48·72·120시간권으로 개편한다. 이용 비율이 줄어든 24시간권 종료를 검토하고, 서울 관광 체류 일정 확대를 위해 120시간권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하고 제휴 마케팅을 펼쳐 디스커버서울패스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 관광객 정보 접근성 강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의 여행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관광콘텐츠 발굴로 트렌드 기반의 서울관광 수요를 창출,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증원 '자율화'

국무회의 '대학설립·운영규정' 통과 '석사→박사' 정원 조정비율, 1대1 완화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자·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 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이현진 기자 lhj@

DDP 10주년 새 슬로건 '어메이징 투모로우'

'국민들에 놀라운 경험 선사' 의미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어메이징 투모로우(Amazing Tomorrow)'를 새 슬로건으로 정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DDP디자인홀에서 슬로건 선포식과 포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놀라운 내일'이라는 뜻을 담은 신규 슬로건은 지난 2014년 개관 이후 10년간 사용해 온 '드림, 디자인, 플레이(Dream, Design, Play·꿈꾸고, 만들고, 누리다)'를 대체하게 된다.

2014년 3월, 당시 노후한 동대문 운동장과 풍물시장이 자리한 곳에 들어선 DDP는 개관 이후 뉴욕타임스가 꼽은 '꼭 가봐야 할 명소 52'에 선정되는 등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새 슬로건 '어메이징 투모로우'에는 우주선을 닮은 미래지향적 건물 디자인·첨단 시공 기술·콘텐츠로 무장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를 통해 DDP를 방문하는 시민, 외국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달 26일 '서울의 놀라운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체비에 나선다.

포럼에서는 커넥트(Connect), BTS의 강인연 작가가 최근 구글·NASA 등과 협업한 경험을 소개하며 'AI 혁신이 불러온 창조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도쿄를 바꾼 빌딩들'의 저자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이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북부 관광활성화에 3년간 441억 투입

대표 관광브랜드·콘텐츠 개발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잠재 자원을 활용하고 침

체된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수의 관광지가 오래돼 체류 관광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아트 투어버스 ▲북부광역 시티투어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야간관광지 활성화 ▲음식문

화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 및 관광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아트 투어버스'의 경우 장욱진 미술관, 가나 아트센터가 있는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연천 동북부 시군에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남양주·포천·연천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시티투어'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4월 24일(수)
음력 : 3월 16일

수도권 날씨
11~1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45 | 해질 / 19:16

연천 10/16
동두천 10/17
가평 9/17
파주 10/17
서울 11/17
양평 11/17
인천 12/16
수원 12/16
용인 12/16
평택 12/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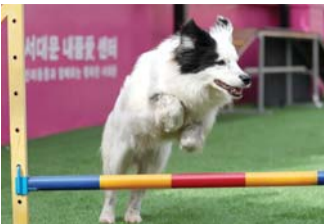


- ▲ 폴란드 대통령 "핵무기 보유할 준비 돼있다" 미국 핵배치 긍정 /사진 뉴스시스
- ▲ 中, 세계 최초 달 표면 '지질 정보' 담긴 고화질 지도 공개

- ▲ 美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바이든 "노골적 반유대주의 위험"
- ▲ 日,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진행... 마이너스 금리 폐지 및 엔저 논의



- ▲ 日 국회의원 94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각료 1명도 동행 /사진 뉴스시스
- ▲ 러, 美 우크라이나 지원 앞두고 공세 강화...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르키우 맹폭



펫보험 가입률 1.4%
보험업계
혜택 강화 나선다
08



Life

롯데윌푸드
“제로” 매출
500억 목표
니



“인재 양성, 문화 공헌... ‘게임’으로 사회적 변화 이끌 것”

☆ 빛나는 인터뷰 이 나 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

‘빛나는 인터뷰’의 네 번째 주인공은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을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재단이다.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넷마블문화재단은 우리사회 미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의 다채로운 문화공헌

“게임을 들여다보면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있다.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다.”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의 활동은 사회공헌에서 나아가 문화공헌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 출범해 넷마블의 공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넷마블게임콘서트’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게임 산업에 대한 최신 지견, 비전, 가치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 게임 물리학, 게임과 역사의 만남, 디지털 윤리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장애청소년 및 청년으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을 초청한 게임음악 연주회가 열렸다. 당시 행사에서는 ‘모두의마블송’ 뿐 아니라 테일즈위버,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라이엇게임즈 등의 게임 주제곡도 연주됐다.

이 국장은 “현대 사회에서 게임은 종합 예술”이라며 “다양한 예술과 융합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어깨동무문고’ 출간 사업은 게임에서 중요한 스토리텔링, 필수적인 디지털 디자인 등을 동화라는 아날로그적인 장르로 옮김으로써 상생에 나선 활동이다. 어깨동무문고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룬다는 이념을 목표로 한다.

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게임업계 최초로 ‘넷마블조정선수단’을 창단했다. 소속선수들은

2018년부터 넷마블 공익활동 이어와 장애청소년·청년 게임 음악연주회 초청 다양한 예술과 융합, ‘문화 가치’ 전달

이나영 국장은 “체육도 문화의 한 부분인데, 조정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훈련 환경이 열악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정성·지속성이 넷마블문화재단의 경쟁력

이 국장은 “진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문성도 지속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유명한 문제집을 한 번 풀었다거나 비싼 강의 한 번 들었다고 공부를 끝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어 “무엇보다 게임 개발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 기본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 개발 바탕에 게임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 세계관 같은 것들이 없다면 건전한 게임은 나오기 힘들다. 1년 내내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임아카데미’는 8개월 과정으로 게임 개발 및 제작 전반을 경험하는 실무형 교육과 멘토링이 특징이다. 교육 수료 후에도 게임 전시회 개최, 특강, 선배 기수와의 교류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4 넷마블게임아카데미 9기’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게임 개발에 역량을 보유한 중·고등학교 청소년 누구나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중 1개 분야에 신청 가능하다. 서류전형, 심층면접, 전공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 국장은 “게임아카데미 출신 친구들은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기도 하고 게임 산업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넷마블문화재단은 단순 장학금 제공이 아니라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또 넷마블문화재단은 ‘창문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소의 계층에 있는 아동의 문화양극화 해소 및 긍정적 정서 함



이나영 사무국장이 ‘사랑을 쏟아 만든 희망의 별’을 소개하고 있다. ‘사랑을 쏟아 만든 희망의 별’은 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것다는 넷마블문화재단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넷마블 지타워에서 ‘게임음악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다. /넷마블문화재단

실무형 교육·멘토링 ‘게임아카데미’ 기획, 디자인 등 게임개발 꿈나무 키워

15년간 특수학교 게임문화체험관 운영 국내 최초 ‘게임박물관’ 건립 추진도

양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코딩 교육에 문화예술을 더한 창의문화예술교육이다.

이 국장은 “이러한 인재 발굴 사업 등을 지속할 때 넷마블문화재단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방향성도 명확해졌다. 물론 매년 개선할 점이 있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줄기를 따라 일관되게 간다는 부분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때그때의 어떤 이슈나 유행을 따르는 단기적인 사업도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성을 갖춘 노력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연령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데, 게임을 가장 애용하는 소비자층임과 동시에 게임 산업의 미래 주역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소통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의 유대감 형성이 건강한 게임 문화를 지지하는 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체험관 이어 게임박물관 건립 추진

이 국장은 “15년 동안 특수학교 내에 게임문화체험관을 설치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해 학교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장애학생의 여가 문화 다양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와 유관 기관에 게임문화체험관을 개설해 왔다. 게임문화체험관에는 PC, 모바일, VR 장비 등 최신 기기들과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게임 공간이 마련된다. 게임문화체험관은 지금까지 ‘도전’을 핵심 키워드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동행’을 목표로 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현재 국내 최초 게임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이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게임 기기, 영상물, 도서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나영 국장은 “넷마블문화재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헌신하고 싶다. 산업적인 영역에서 확장된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서 보람을 찾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U23’ 국가대표팀, 한-일전 1:0 승리... 8강서 인도네시아와 격돌 /사진 뉴시스
▲ 한일전 김동진 태클 일본서 ‘논란’... ‘레드카드’ vs ‘고의 아니야’

▲ ‘마약 논란’ 오재원, 후배 8명 수면제 대리처방 강요하고 폭행까지
▲ 한예중 재학생 4인, 세계 최대 발레 콩쿠르 ‘2024 YAGP’ 그랑프리 입상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날 연휴 어린이박물관 입장객 확대 /사진 뉴시스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내달 4~6일 ‘가족동행축제’ 개최